

인도

2009년 6% 전후로 성장률 둔화

>> 2009년 인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라 2008년에 이어 6%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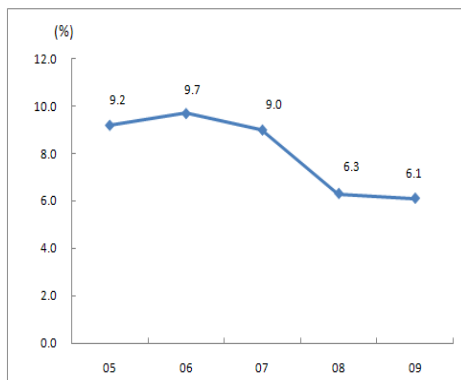
❖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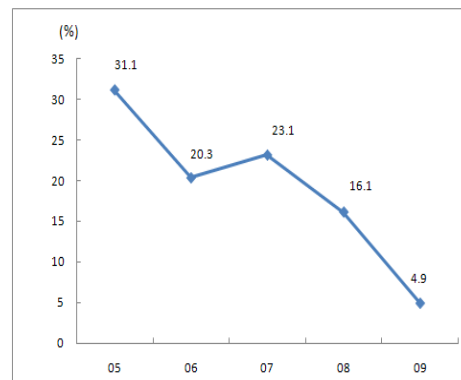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09년
실질GDP성장률	9.0	6.3	6.1
실질소비자소비	7.2	5.1	5.1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6.4	5.2	5.2
경상수지(10억 달러)	-12.1	-38.4	-47.5
경상수지(% of GDP)	-1.1	-3.2	-3.8
수출(10억달러)	151.3	175.7	184.4
수입(10억달러)	230.5	287.5	293.5
환율(루피/US\$, 평균)	41.35	43.32	47.00

주 :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전망치
자료 : EIU

[경제성장률 전망]



[수출증가율 전망]



'08년 인도경제 6.3% 성장 예상

■ 경제성장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로 인해 2008년 성장률은 6.3%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디레버리징의 확산에 따라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 하던 원동력의 대폭적인 축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으로도 번 지는 추세임

투자증가율은 당초 9.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정부와 민간 모두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7.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해 8.3% 보다 급격히 줄어든 5.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정부소비 증가율은 8.9% 수준으로 소 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수출 증가율은 2008년 2/4분기에 19.5%를 기록했으나, 4/4분기 5% 로 대폭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물가상승 압력 완화

■ 물가·금리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물가 인상폭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나, 인도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음. 첫째, 루피화가 평가절하되었으나, 다시 재평 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환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둘째, 8월 이후 국제유가가 폭락하였으나, 인도는 2007년말 유가 급등 이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 가 하락의 혜택을 입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2008년 도매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측면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이 2004년 10월 이후 금리인상을 지속함으로써 최고수준에 이렀으나, 지난 10월 20일 단기대출 금리를 1%p 전격 인하함으로써 8%까지 낮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됨

생산 증가세 다소 둔화

■ 산업생산

산업생산 중 자본재생산 증가율은 2008년 4~9월 기간 9.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 동기 20.1%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임. 이런 상황에서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도 부진해지고 있음. 제조업 생산은 2007년 9.0% 증가에서 2008년 4~8월 기간 5.2%로 증가율이 절반 가까이 둔화함. 전력생산도 6.4%에서 2.3%로 증가율이 하락함

■ 대외거래

최근 인도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2008년 수출은 16.0%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4.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도 81억 달러 적자에 달함

2008년 12월 중순 현재 환율은 47.01 Rs/\$

■ 환율

달러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인도로부터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고, 인도 은행들이 대외 활동을 위해 달러를 매입하고 있어, 루피의 대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하반기 들어 급격해짐. 2008년 초와 비교할 경우 10월말 현재 20% 상승하여 50Rs/\$에 근접함

[루피의 대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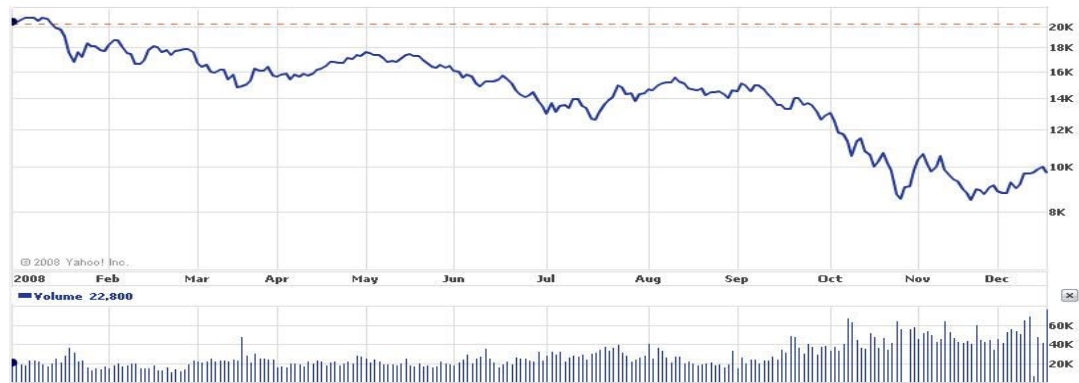


주가 하락세 지속

■ 주가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입으로 2007년 2만 포인트를 상회하였으나, 연초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특히 3/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로 대폭 하락하였음. 최근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으나, 조기 급등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Mumbai Sensex 30 Index 추이]



02

경제 전망

2009년 6%대 전후의 성장률 예상

■ 경제성장

2007년 9%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던 인도경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하여 2008년 6~7%로 하락하나, 꾸준한 내수 성장에 따라 2009년 6% 전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전망기관들은 최근 경제전망 자료에서 2009년 인도경제가 6.1~6.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EIU가 2009년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IMF는 6.3%, Morgan Stanley는 6.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가장 높은 7.0%의 성장을 전망함

❖ 주요 기관의 인도경제 성장 전망 ❖

(%)

	IMF	ADB	Morgan Stanley	EIU
2008	7.8	7.4	6.4	6.3
2009	6.3	7.0	6.5	6.1

고환율 및 유가보조금 등으로 물가상승세 지속 예상

■ 물가·금리

2009년 1월 5백만명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으로 있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인도중앙은행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벗어나, 2009년에는 5~5.5% 수준의 물가상승을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음. 2009년 도매물가상승률은 다소 완화된 6.7%로 전망됨

인도중앙은행은 2009년 상반기 중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되나, 통화 평가절하와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루피환율 47.01Rs/\$ 내외 전망

■ 환율

2008년 말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 인도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함. 그러나, 포트폴리아 자금의 유출, 약화된 생산활동,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인해 루피화의 반등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08년 대비 2009년 연평균 달러 대비 환율은 7.8% 추가로 하락한 47Rs/\$로 예상됨

2009년 무역 적자 소폭 확대 전망

■ 수출입전망

2009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두바이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환율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다소 회복될 수도 있으나, 실물경제로 전이된 경기침체로 인해 대폭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만 서비스무역 수지 흑자는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환율상승과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 영향이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효과를 초과하여 2009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어 GDP의 3.8%인 4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상품 무역 적자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무역 흑자도 2009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03

주요 이슈 및 리스크

▣ 2009년 핵심 이슈는 총선과 주변국 갈등 문제

2009년 인도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국내적으로는 5월 실시될 총선의 결과 90년 중반부터 시작된 연정과 양당 구도가 고착화될 것인지, 또는 인도국민의회가 단일 정당으로 집권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임. 국제적으로는 핵협력협정을 체결한 미국에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정립, 최근 뭄바이 테러사건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갈등 문제가 있음

현 인도 중앙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인도국민의회는 최근 실시된 주 의회 선거결과 5개 주에서 집권하였고, 2개 주에서 지난 선거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2009년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짐. 동 투표결과는 만만한 싱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소냐 간디와 라홀 간디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데 반해, 최대 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은 그에 견줄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임. 또한 전반적으로 힌두 근본주의가 약화되고 있고, 카스트간의 지지층도 분리되고 있어, 야당의 정치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좌파 정당들은 현 집권당이 미국과 핵협력협정을 강행하자 연정에서 지지를 철회하였고, 집권당은 결국 하원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했음. 재신임 투표에서 회생하였으나, 야당은 2009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결과 56%만 미국과의 핵협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는 답변자 중 60%가 협정을 지지하고, 37%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음

최근 인도의 경제수도인 뭄바이 호텔, 식당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하여 180여명이 사망함. 인도 정부는 이번 테러를 파키스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마트-우드-다와가 자행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단체는 탈레반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짐. 인도 정부는 60시간 만에 테러를 진압하였으나, 힌두근본주의 정당인 BJP는 이슬람 기반인 집권당이 그간 이슬람 테러단체를 강력 소탕하라고 한 요구를 묵살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음. 또한 이 문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 2009년 최대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